

2년제, 3년제, 4년제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perceiv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wo-year, three-year and four-year

홍연애·김리진*

대덕대학교 유아교육과·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Hong Yeon Ae·Kim Lee Ji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duk College
Institute of Social & Emotional Development,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go-resilience. The participants were 238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hungnam Province. The research instruments were Social Support by Yoon(1993), and Ego-Resilience by Park(1997).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F test and Duncon's test for post hoc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d Cronbach's α for reliability by SPSS PC program(17.0 ver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by education term.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by education term. Two-year had higher scores on social support from friends than three-year.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go-resilience by education term. In the order of four-year, two-year, and three-year had higher scores on ego-resilience. A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sub-factors of ego-resilience by education term. Four-year had higher scores on self-confidence than three-year and two-year. In the order of four-year, two-year, and three-year had higher scores on ego-resilience, and anger regulation. Last, social support from friend and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 explained 15% of variance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ego-resilience.

Keyword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I. 서론

유아교육의 질은 유아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교사변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왔다(Cho & Koo, 2005; Lee, 2000; Lee & Cho, 2009). Lee(2000)는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변인이 아동이나 어머니변인보다 보육에 미치는

* Corresponding Author: Kim Lee Jin
Tel: 02-3290-1672
E-mail: chum123@hanmail.net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교육기관을 통한 생애 초기 교육의 질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 만큼이나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기는 형식적 교육이 시작되는 가장 어린 연령이므로 다른 어느 시기보다 교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유아 교사의 중요성에 비해 유아교사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과중한 업무, 저임금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Cho & Koo, 2005). 양질의 보육을 위해 유능한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설이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성적 요소를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유아교사는 미래 교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전공 학습에 대한 부담감, 인간관계 및 진로문제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Lee & Ryu, 2009; Park, 2009a). 예비유아교사 교육을 위한 대학교육과정은 유아교사 전문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개인적 자질과 실천적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심화된 교육과정이 요구된다(Choi, 2009).

유아교육과는 전문대학의 2년제와 3년제, 그리고 4년제 대학이 있어 학제운영이 다양하다.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을 포함해 국가자격증 취득에 요구되는 교직 및 전공과목으로 편성된다. 유아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은 예비유아교사의 교육과정인 대학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때부터 교사로서의 발달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가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예비교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Kim & Cho, 2003). 따라서 전문적인 유아교사의 양성에 대한 논의가 예비유아교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예비유아교사의 신념 및 특성 등의 내적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때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예비유아교사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Ryu & Kim, 2010).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정서상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Shin, 2010), 유아교사의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애 초기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및 행복감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

다(Kim, 2012; Lee & Cho, 2009; Sim, 2007).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하며,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조절 기제를 활용하게 된다(Tugade & Fredrickson, 2004). 자아탄력성이 높은 예비유아교사는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스트레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가 자아탄력적이어서 행복감을 많이 느낄수록 그들이 교육하게 될 유아와 유아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자아탄력성이란 좁은 의미로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적 요구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역동적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동성 때문에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부정적 정서로부터 회복되는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직면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직면한 상황이 어려움이나 곤란 또는 스트레스로 지각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이나 불안을 적게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Tellegen, 1985). 이에 반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며 적응적 유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외상적 사건에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Block & Kremen, 1996).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특성을 지니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닌다(Kwon, 2006). 즉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에 민감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중간 수준의 자아통제를 지니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한다(Jang, 2001).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경험을 잘 헤쳐 나가며,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게 된다(Kim, 2011).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Kim, 2012)에서 행복감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Kim, 2011),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대인 관계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닌 보육교사는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녀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어서 유아와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한다. 또한 유아교사들은 자신들의 자아탄력성이 비교적 높다고 여기며, 특히 낙관적 태도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Lee & Cho, 2009; Sim, 2007).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비교적 안정성을 갖는 심리적 변인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은 유아교육기관에 취업된 이후 뿐 아니라 그 이전인 예비교사로서의 훈련과정인 대학교육 기간 동안에도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 중에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Mau *et al.*, 2008; Stoalard & Lehman, 2004).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으로는 환경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Schwarzer & Nina, 2007).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원조이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줄 변인으로 볼 수 있다(Baruch *et al.*, 2002; Park, 2010).

유아교사가 동료와 선배의 지지 및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4).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주어지는 정서적 지지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정서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게 되는 정서적 형태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Cobb, 1976).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주어지는 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되는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Ahn & Kim, 2007; Armstrong *et al.*, 2005; Cohen & Hoberman, 1983).

예비유아교사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Choi, 2009), 자기결정성 동기 중 지적자극 동기가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와의 관계에서는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기결정성 동기 중 지적자극 동기가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 정서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Folkman & Moskowitz, 2000)를 고려해 볼 때, 동료교사나 학부모 또는 원장이나 원감 등의 관리자로부터 경험되는 관심과 애정, 신뢰감 등의 정서적 지지는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할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잠재적인 행동 변수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지는 미래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ubow & Tisak, 1989).

초등학교 이후 성인기에 이룰수록 사회적 지지원 중 가족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친구와 교사의 영향력은 증가한다. 따라서 대학생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고찰할 때는 가족의 지지와 친구와 교사(교수)의 지지도 함께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창(McAfee & Leong, 2007)을 통해서 볼 때 개인을 좀 더 정확하고 융통성 있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 자체를 증진시키고, 스트레스의 강도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한다(Choi, 2009).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지각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Kim, 2011).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정적 상관,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력이 정적상관, 자아탄력성과 문제해결력이 정적상관이 있으며, 이는 대학생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7). 이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등의 자아감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보고(Cho *et al.*, 2008; Marksttom *et al.*, 2000; Moon & Kim, 2005)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사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9b),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갈등 상황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은 상황적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등 사회적 지지를 높이 지각하는 사람은 역경 상황에서도 높은 자아탄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2006; Kim & Kang, 2005; Wilks,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유아교사에게 적용한 경우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정서 지지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된다(Min & Gwon, 2009).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보다 높은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는 유아교사는 보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정서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정서지지로 인한 긍정적 정서의 유발로 볼 수 있다.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연구(Cho & Lee, 2010)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높은 수준으로 유아교사 스스로 자신들이 탄력적으로 자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장과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도 비교적 높았다.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있었다(Chung & Lee, 2011). 이렇듯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Min & Gwon, 2009)와 유아교사(Cho & Lee, 2010), 초임교사와 경력교사(Chung & Lee, 2011)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유아교육기관 현장진입의 준비단계에 있는 예비유아교사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비하다. 예비유아교사가 미래교육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유아교육과는 전문대학의 2년제와 3년제, 그리고 4년제 대학이 있어 양성기간이 다양한데,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연한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환경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개인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의 차이

를 알아보고, 사회적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수)가 개인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육연한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및 충남지역의 예비유아교사 238명이다. 예비유아교사는 학기가 거듭될수록 유아교육 이론과 교수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마지막 학기에 교육실습을 마친 졸업반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2년제 전문대(44.0%), 3년제 전문대(38.9%), 4년제 대학(11.7%) 순이었고, 대부분이 20대(64.4%)였고, 30대(24.6%)와 40대(11.0%)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이 여성(98.7%)이었으며, 미혼(61.8%)이 기혼(38.1%)보다 훨씬 많았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1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강의시간 중 설문지를 실시하고 바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3,4년제 대학은 각각 2군데씩 총 6군데였으며, 250부의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빠진 문항이 많은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238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도구는 Park(1985)이 개발한 도구를 기초

로 Yoon(1993)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인 가족, 교수, 친구로 부터의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본 연구 목적과 맞지 않아 도구적 지지는 제외하였음)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Sim(2007)의 연구에서 .97, .95, .9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8, 하위척도는 모두 .97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도구는 Klohnen(1996)의 자아탄력성 측정 도구를 Park(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네 개의 하위 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와 '분노조절'로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Park(1997)의 연구에서 .81, .80, .80, .5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는 .92, 하위척도는 .80, .80, .83, .7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자아탄력성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연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기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가족, 친구, 교수)와 자아탄력성(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낙관적 사고, 분노조절)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변인의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점수를 문항 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5점 리커트 척도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지 전체 평균은 3.96($SD=.63$)로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사회적 지지($M=4.25$, $SD=.7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사회적 지지($M=4.08$, $SD=.67$), 교수사회적 지지($M=3.55$, $SD=.83$)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전체 평균은 3.37($SD=.56$)로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낙관적 사고($M=3.66$, $SD=.6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M=3.47$, $SD=.57$), 대인관계효율성($M=3.34$, $SD=.65$), 분노조절($M=3.01$, $SD=.9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mean(M) and standard deviation(SD) of the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n=238)

Variables	Categories	M	SD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from family	4.25	.71
	Social support from friend	4.08	.67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	3.55	.83
	Total	3.96	.63
ego-resilience	Self-confidence	3.47	.57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3.34	.65
	Optimistic attitude	3.66	.60
	Anger regulation	3.01	.93
	Total	3.37	.56

2. 교육연한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예비유아교사를 교육하는 교육연한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별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연한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사회적 지지의 전체평균은 2년제($M=4.02$, $SD=.67$)가 가장 높았고, 4년제($M=3.93$, $SD=.77$) 3년제($M=3.91$, $SD=.52$)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친구·교수사회적 지지는 2년제, 4년제, 3년제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사

회적 지지는 2년제, 3년제, 4년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 전체에서는 교육연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요인인 친구사회적 지지($F=3.9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2년제, 4년제, 3년제 순으로 친구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2년제 교육연한으로 교육받은 예비유아교사가 3년제 보다 친구들 간의 서로 지지하는 경향이 더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년제 교육연한으로 교육받은 예비유아교사는 2년제나 3년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전체평균은 4년제($M=3.66$, $SD=.64$)가 가장 높았고, 2년제($M=3.42$, $SD=.52$), 3년제($M=3.19$, $SD=.50$)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Table 2)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r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by education term (n=238)

Variable	Categories	Group	M	SD	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from family	2 year	4.33	.72	2.91	
		3 year	4.26	.61		
		4 year	4.01	.86		
	Social support from friend	2 year	4.21	.69	3.90*	b
		3 year	3.96	.57		a
		4 year	3.99	.79		ab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	2 year	3.52	.93	1.85	
		3 year	3.49	.72		
		4 year	3.78	.74		
	Total	2 year	4.02	.67	.91	
		3 year	3.91	.52		
		4 year	3.93	.77		
ego-resilience	Self-confidence	2 year	3.49	.51	6.65**	a
		3 year	3.33	.54		a
		4 year	3.72	.72		b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2 year	3.38	.59	9.39***	b
		3 year	3.16	.62		a
		4 year	3.66	.74		c
	Optimistic attitude	2 year	3.70	.60	2.87	
		3 year	3.55	.55		
		4 year	3.80	.66		
	Anger regulation	2 year	3.12	.94	10.99***	b
		3 year	2.71	.87		a
		4 year	3.45	.78		c
Total	2 year	3.42	.52	11.64***	b	
	3 year	3.19	.50		a	
	4 year	3.66	.64		c	

* $p<.05$, ** $p<.01$, *** $p<.001$.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도 4년제, 2년제, 3년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 전체에서는 4년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년제, 3년제 순으로 나타났다($F=11.64, p<.001$). 하위요인인 자신감($F=6.65, p<.01$), 대인관계효율성($F=9.39, p<.001$), 분노조절($F=10.9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자신감은 4년제가 2년제와 3년제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4년제 교육연한으로 교육받은 예비유아교사가 2년제와 3년제 보다 자신감이 더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효율성과 분노조절은 4년제, 2년제, 3년제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4년제 교육연한으로 교육받은 예비유아교사가 2년제와 3년제 보다 분노조절을 더 잘하고 대인관계효율성이 더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Dubin-Watson 검증치와 분산팽창인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다. Dubin-Watson 검증치는 자아탄력성 전체는 1.743,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1.822, 대인관계효율성은 1.996, 낙관적 태도는 2.029, 분노조절은 1.707로 모두 2에 가까워 각 변인은 서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변량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VIF 값은 1.38~1.53로 나타났으며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인 가족 사회적 지지, 친구 사회적 지지, 교수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전체와 하위변인(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동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자아탄력성 전체에서는 친구사회적 지지($\beta=.24, p<.05$)와 교수사회적 지지($\beta=.1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 전체 변량의 15%($F=14.96, p<.001$)를 설명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

〈Table 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to ego-resilience

	Predictor variables	B	β	t	R	R^2_{adj}	F
Self-confidence	Social support from family	.07	.08	.90			
	Social support from friend	.17	.20	2.01*	.41	.15	15.43***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	.14	.20	2.58*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Social support from family	-.10	-.11	-1.13			
	Social support from friend	.28	.29	2.84*	.26	.06	5.84**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	.05	.07	.86			
Optimistic attitude	Social support from family	.21	.25	2.93**			
	Social support from friend	.19	.21	2.33*	.51	.25	27.86***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	.09	.12	1.81			
Anger regulation	Social support from family	.03	.02	.20			
	Social support from friend	.17	.12	1.16	.22	.04	4.11**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	.13	.12	1.45			
Total	Social support from family	.05	.07	.71			
	Social support from friend	.20	.24	2.49*	.40	.15	14.96***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	.10	.15	2.00*			

* $p<.05$, ** $p<.01$, *** $p<.001$.

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에서는 친구사회적 지지($\beta=.20, p<.05$)와 교수사회적 지지($\beta=.2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변량의 15%($F=15.43, p<.001$)를 설명하였다. 대인관계효율성에서는 친구사회적 지지($\beta=.29, p<.05$) 하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효율성 변량의 6%($F=5.84, p<.001$)를 설명하였다. 낙관적 태도에서는 가족사회적지지($\beta=.25, p<.01$)와 친구사회적지지($\beta=.2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적 태도 변량의 25% ($F=27.86, p<.001$)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노조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유아교육과는 전문대학의 2년제와 3년제, 그리고 4년제 대학이 있어 학제운영이 다양하다. 유아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은 예비유아교사의 교육과정인 대학교육과정에서부터 유아교사로서의 발달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들이 유능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대전 및 충남지역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연한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적 환경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개인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연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개인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수)가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높은 편이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지도교수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가 가족이나 친구, 교수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으며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Park(2012)의 연구와 일치하며,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 유아교사들은 부모나 가족, 친구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보통이었다. 낙관적이고, 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분노조절 모두 평균을 웃도는 정도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이 탄력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에서 분노조절의 표준편차가 다른 요인에 비해 높았으며, 분노조절은 개인의 성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선행연구(Cho & Lee, 2010)와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낙관적 태도가 높고, 숙련된 표현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Park(2012)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을 때, 예비유아교사일 때보다 일정한 교육과정과 실습과정을 거치면서 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상승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를 교육하는 교육연한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2년제, 4년제 3년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하위요인인 친구 사회적 지지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2년제, 4년제, 3년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년제 교육연한으로 교육받은 예비유아교사가 3년제보다 친구들 간에 서로 지지하는 경향이 더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년제 교육연한으로 교육받은 예비유아교사는 2년제나 3년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한이 짧은 예비유아교사들은 빠빠한 교육일정과 실습과정을 거치며 동료 간의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유아교사들 사이에 동료 교사와의 사회적 지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선행연구(Cho & Lee, 2010; Sim, 2007)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친구 사회적 지지, 부모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Park(2012)의 연구에 의하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학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를 교육하는 교육연한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4년제, 2년제, 3년제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4년제가 2년제와 3년제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효율성과 분노조절은 4년제, 2년제, 3년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교육연한으로 교육받은 예비유아교사가 자아탄력성, 즉 자신감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효율성이 있으며, 분노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2)의 연구에서 4년제가 3년제보다 대인관계효율성이 높은 것과 일치한다. 이는 3년제 학교의 특성

상 4년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를 오랫동안 교육할수록 유아교육에 대한 확신과 교육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교육과정동안 협동과제와 실습과정을 통해 대인간의 관계 맺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구 사회적 지지, 교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전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15%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가 친구와 교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친구들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인정을 해주는지 여부와 예비유아교사의 과제 수행 후에 받게 되는 교수의 피드백(칭찬과 인정)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Ryu & Kim, 2010)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을 예측하는 변인은 친구 사회적 지지와 교수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변량의 15%를 설명하였다. 즉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lifton, *et al.*, 2004).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동료와의 관계와 모델링할 수 있는 교수와의 관계에서 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애정, 관심, 친밀감과 같은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여 진다. 대인관계효율성을 예측하는 변인은 친구 사회적지지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효율성 변량의 6%를 설명하였다. 즉 주변의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대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는 연구결과(Fredrickson, 2001)와 일치한다. 낙관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은 가족사회적지지와 친구사회적지지로 나타났으며, 낙관적 태도 변량의 25%를 설명하였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가족과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ang, 2006; Kim & Kang, 2005; Min & Gwan, 2009; Ryu & Kim,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의미 있는 대상으로 하여금 애정, 신뢰, 관심, 경청과 같은 정서적 지지가 주변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Folkman & Moskowitz, 2000)는 점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갖는 유아교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은 예비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직업선택 및 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 Kim, 2010).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대전 및 충남지역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으로 자료 수집함으로써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이라는 전공 특성상 연령이 높은 기혼자가 많은 점을 통제하지 못해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유아교육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에서 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 변인인 사회적 지지만을 보았다는 점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적 측면을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예비유아교사 교육을 위한 대학교육과정은 유아교사 전문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개인적 자질과 실천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심화된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 중 교수와 동료들과의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주제어: 예비유아교사,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REFERENCE

- Ahn, D. H., & Kim, J. A. (2007).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Compet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1), 47-67.
- Armstrong, M. I., Birmie, Lefcovitch, S., & Unger, M. (2005).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69-281.
- Baruch-Feldman, C., Brondolo, E., Ben. Dayan, D., &

- Schwarth, J. (2002).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career commitment among primary school teacher. *Educational Psychology, 11*, 59-76.
- Block, J.,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development*, Vol. 13. (pp. 89-11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ho, S. J., Moon, S. B., & Min, H. Y. (2008). The Influence of the Self-Efficacy and the Social Suppor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25-32.
- Cho, S. Y., & Koo, H. A. (2005). A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4), 55-70.
- Cho, S. Y., & Lee, J. H. (2010). The Effect of Ego-resilience and Directors and Fellow Teachers Social support o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29-42.
- Choi, M. S. (2009). A Study on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Thinking Style,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201-223.
- Chung, M. S. (2008). Parenting Stress in Mother of School-aged Children: Effects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chool Grades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6), 107-121.
- Chung, H. W., & Lee, O. H. (2011). The influence of job stress,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among beginning and experienced preschool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3), 31-53.
- Clifton, R. A., Perry, R. P., Stubbs, C. A., & Roberts, L. W. (2004). Faculty environments, psychosocial disposition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5*, 801-828.
- Cobb, S. (1976). Social supports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47-654.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Special Issue, 56*, 218-226.
- Jang, H. S. (2001). Close Social Relationships and Attachment Functions of Parents and Friends in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4*(3), 19-34.
- Kang, H. K. (2006). Social Supports and Ego-Resilience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1), 149-159.
- Kim, E. H. (2004). The relations among kindergarten teachers'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 Cho, I. K. (2003).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program reflecting on the characters of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Association of Young Child Education, 6*, 149-161.
- Kim, J.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Department

-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Kim, S. K., & Kang, M. H. (2005). The Path Analysis Among Risk-Protective Factors on the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6(1), 261-278.
- Kim, S. S. (2012).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s stress coping style and ego-resilience on their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3), 66-83.
- Kim, Y. K. (2011).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labor Ego-resili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 - 1079.
- Kwon, J. H. (2006). Study on Explanatory Variables of Ego-Resilience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S. (2000). Exploring variables influenc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H., & Cho, S. Y. (2009). Moderating Effects of the Childcare Teacher's Ego-resilience on Relationship between Their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4), 559-570.
- Lee, J. W., & Ryu, J. H. (2009). The Exploration of Student Teachers' Emotion on Their Student Teac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6(1), 127-144.
- Lee, Y. M. (2007). The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Mau, W. C., Ellsworth, R., & Hawley, D. (2008). Job satisfaction and career persistence of beginning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22(1), 48-61.
- Markstom, C. A., Marshall, S. K., & Tryon, S. J. (2000). Resiliency,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urban low income appalachian adolescents from two racial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23, 693-703.
- McAfee, O., & Leong, D. J. (2007). *Assessing and guiding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learning*. 4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Min, H. Y., & Gwon, G. N. (2009).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Support from Social Network, Ego-Resiliency, and Role Conflict of Teachers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5), 91-99.
- Moon, S. T., & Kim, M. B. (2005). The Analysis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djustment for Agricultur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7(2), 37-56.
- Park, E. (2012).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Well-being and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E. H. (2009a).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Seoul: Chang Ji-sa.
- Park, E. J.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Job Stress, Teacher Efficacy, Soci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Park, J. S. (2009b).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ir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 J. (1997). Perceived stress, coping process and depression to ego-resilience. Unpublished

-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Y. S. (2012). The Effect of Optimism,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for Stress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ducational Leve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2), 113-138.
- Ryu, H. S., & Kim, J. J. (2010).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Teaching Efficacy of Practice students through the period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93-116.
- Schwarzer, R. & Nina, K. (2007). Foundation roles of social support within the stress and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4), 243-252.
- Shin, I. S. (2010). The influence of laughing program on subjective happi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cou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ungji University, Kyung-ki-do, Korea.
- Sim, S. A. (2007). Influence of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the Burnout of Daycare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toalard, J., & Lehman, M. B. (2004). Influences on satisfaction and retention of 1st-year teacher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school management.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40(5), 742-771.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ter (Ed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 Yoon, H. J. (1993). Perception of everyday stress and social network support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Wilks, S. E. (2008). Resilience amid academic stress: The moderating impact of social support among social work students. *Advances in Social Work*, 9(2), 106-125.

접 수 일: 2012. 12. 11

수정완료일: 2013. 04. 03

게재확정일: 2013. 04. 04